

#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19'... 6개월만에 일상을 바꿨다

### 마스크 쓰기·사회적 거리두기·엔택트 등 개인방역 일상화 문화·여행 풍속도 변화... 고용·수출 감소 지역경제 타격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첫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6개월이 흘렀다. 방역당국과 시민들은 여전히 코로나19와 싸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6개월 만에 지역민들의 일상과 사회 전반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다.

특히 코로나19 국내 첫 발생 이후 '정적 지역'으로 꼽혔던 광주·전남지역에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엔택트(비대면·비접촉)로 대표되는 변화는 이제 일상이 됐다.

마스크 없이 외출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워졌고, 다중이용시설 입장을 위해서는 먼저 체온을 측정하고 필요시 방문 기록까지

남겨야 한다.

◇재택근무·랜선 교실 일상화=회사마다 재택근무제가 도입되고, 대학 등 교육계에 서도 수업과 시험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직장 내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기업이 불가피하게 시작한 재택근무는 장점이 드러나면서 향후 근무 형태의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기도 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를 경험했고, 이 중 71%가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 일하기를 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의도치 않게 진행된 온라인 수업(원격수업)

은 학교 현장에서 10년 동안 이뤄지지 않은 변화를 6개월 만에 가능하게 했다. 최초로 온라인 개학이 이뤄졌고, '랜선 교실'에서 먼저 마중만 교사와 학생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새로 부상하는 미래 교육방식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은 셈이 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준비가 덜된 상황에서 미래교육이 현실화되면서 학습공간과 학습자료 등 콘텐츠 확보 여부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시급해졌다.

◇여행 풍속도 변화에 문화계도 직격탄=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휴가를 보내는 풍속도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일선 학교가 코로나19로 학사일정 등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여름방학 성수기였던 '7월 8주'의 여름휴가 양상도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휴가지도 다른 사람

들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행지나, 호캉스(호텔+바캉스), 캠핑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코로나 19 여파로 지역 문화기관도 휴관하거나 행사를 취소, 또는 온라인 행사로 대체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대부분 문화현장이 코로나 19로 사실상 울스톱된 가운데 국제행사인 비엔날레 상황은 심각하다. 당초 오는 9월 열릴 예정이었던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내년 2월로 연기되면서 올해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의욕적으로 기획한 전시와 행사도 차질을 빚었다.

지난 5월 부분적으로 재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광주시 산하 문화기관 등도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현재 프로그램을 연기하고 휴관에 돌입한 상태다. 일부 온라인을 통

해 공연과 전시가 진행되고 있지만, 문화예술계는 엔택트라는 새로운 문화생태계에 적응하고 새 트렌드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수출·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생사 위기에 내몰려=코로나19 6개월 동안 지역경제와 고용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세계 각국의 국경이 폐쇄되고 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수출업체 뿐만 아니라 지역 자영업자까지 생사의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 19 여파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지난 5월 기준 지역 광공업 생산액은 광주 23.9%, 전남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광공업 감소 폭은 외환위기(IMF) 직후인 1998년 7월 이래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코로나 고용 절벽'은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올해 2

분기 지역 일용근로자 취업자 수는 광주 2만6000명·전남 3만9000명 등 6만5000명으로, 이는 관련 통계를 낸 1989년 동분기(14만명) 이후 가장 적고 1년 전 보다 무려 1만5000명(18.8%) 감소한 수치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광주·전남 지역민 하나카드 사용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 5월 온라인 신용카드 소비가 1년 전 보다 전남 51.7%, 광주 44.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지역 온라인 신용카드 소비 증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주 증가율도 전국 평균(31.2%)을 훌쩍 넘었고, 전남과 강원(48.9%), 경남(45.5%), 충남(44.7%)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 대규모 집단감염 뒤엔 동선 속이기 있었다”

### 확진 3일 후에야 사실 알려...市 “구상권 등 강력대응 할 것”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여가던 광주에서 또다시 거짓진술에 따른 초기대응 실패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터진 2차 유행의 시작점이 대전발 방문판매업이었다면, 이번엔 서울 송파발 방문판매업이다. 감염원 타지역 유입, 최초 전파자 이동 동선 숨기기 등 2차 감염 시작점인 금양오피스텔 사태와도 판박이다.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송파 60번의 확진 판정(15일) 후 3일만인 지난 17일에 그가 지난 10~12일 광주에 머물면서 친지 15명을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송파 60번은 지난 15일 오전 7시 30분께 확진판정을 통보받았고 광주방문 등 이동 동선을 알리지 않고 침묵했으며, 지난 17일야 광주에서 접촉한 동생 2명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확진 사실을 뒤늦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구와 남구에 살던 동생들은 이날 오후 보건소에 연락해 송파 60번과 접

촉 사실을 신고하고, 격리 조치됐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에 송파 60번 확진자의 광주방문 사실을 문의했으나, 송파구에선 해당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송파구는 광주시의 제보를 바탕으로 60번 확진자를 집중 추궁한 끝에 이날 밤 12시께 광주 방문사실과 이동 동선을 파악해 광주시에 통보했다.

송파 60번이 침묵하는 사이 광주의 친인척 확진자들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출퇴근하는가 하면 직업학교에 갔다가 3차 감염을 일으켰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추가 이동동선도 방대할 정도로 다양하다.

송파 60번 친인척들은 광주 인근 장성과 보성, 순천 등을 방문하고, 도시철도 1호선부터 버스터미널, 학동 정류장 등 역학조사를 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장소를 오고 갔다. 대규모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 1일 양성판정을 받은 광주 76

번 확진자(금양 오피스텔 관련)도 전남대 스포츠센터에서 다수를 접촉한 사실을 숨겼다가 10명에 가까운 추가 감염과 n차 감염을 유발했다. 지난달 27일 발생한 광주 첫 2차 감염 사태 때도 슈퍼 전파자로 지목됐던 광주 37번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같은 달 중순께 대전을 방문해 '101세홀막터'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숨기는 등 거짓진술로 일관하는 바람에 집단감염이 확산했다. 지역민들은 이날 광주시 게시판 등에 “거짓 동선 등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거짓진술 등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확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경찰조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거짓진술 등으로 치료비와 방역비 등이 추가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계수초 전교생 전수검사 18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계수초등학교 주차장에 마련된 이동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방역 당국은 재학생인 남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계수초교 전교생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재학생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 /\*최현배 기자choi@

## 코로나 시국에... 거꾸로 가는 단체장들

### 장흥군수 간부직원들과 회식·강진군수 취임 2주년 행사 '눈총'

코로나 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을 출입했다가 지역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들이 무더기 직위해제를 당하면서 관가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일부 시장·군수만은 예외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들에게는 공직기강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은 직원들과 회식이나 기념 만찬을 갖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각 시·군, 관련 기관 등에 당구장·주점·당구장 등

고위험시설 출입 금지, 타 지역 방문이나 소규모 모임 자제 등 직원들의 공직 기강을 확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공직조사팀은 주중은 물론 주말까지 직원들의 근무 외 행위까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 10일과 11일 영암군청과 전남도청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영암군청 직원과 골프를 친 도청 직원 3명, 영암군청 직원 7명 등 무려 10명을 직위해제하면서 직원들의 일상은 크게 위축됐다는 것이 공

직조사팀의 판단이다.

그러나 일부 단체장들은 이러한 분위기에서도 직원, 지역주민, 외부기관 관계자 등과 스스럼없이 술자리를 갖고 있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정준승 장흥군수는 지난 6월 4일 간부 직원 33명 전원을 호출해 술을 마시고, 이승욱 강진군수 역시 지난 6일 지역주민 등과 함께 취임 2주년 기념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 대부분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의 지침도 어겼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선출직인 단체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일까지 연장

전남도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도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지역 감염자인 전남 35번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5일까지 연장한

다”고 밝혔다.

전남 35번 확진자는 직장은 광주, 거주지는 보성인 30대 여성으로, 광주 17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다. 지난 18일 오후 3시께 보성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19일 새벽 1시께 ‘양성’ 판정돼 순천의료원에 입원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지역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최근 전남의 지역감염 사례는 모두 광주지역 확진자 접촉에 의한 것이다”며 “지난 6일부터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5일까지 연장해 강력한 차단방역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따라 휴관 여부를 판단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직통전화 062)416-6226, 010-6833-1600

###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 재출 공고)

주식회사 동남전기(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선봉(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0년 07월 13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장기공시업 영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9제3항의 절차를 밟아 결의하였으며,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익이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익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0년 07월 20일

"갑" 상 호 주식회사 동남전기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동리길18(아곡동)  
대표이사 박기배

"을" 상 호 주식회사 선봉  
소재지 전라남도 목포시 백련대로280번지10(상봉)  
대표이사 정종오

### 산행안내

7월22일(수)  
▲광주청록산악회 7월22일(수) 전북 무주 남덕유 도유동계곡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07:00, 교직원공제회관 07:10, 예술회관후문 07:20, 각화동 현대물류앞 07:3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7월25일(토)  
▲광주자연보전단사회 7월26일(일) 산청 웅석봉 달뜨기농신-백운계곡, 영주체육관 07:00, 무등경기장 07:20, 동광주출몰러스 07:40 \*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7월29일(수)  
▲광주호산회 7월29일(수) 함양 영취산 부전계곡,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7월26일(일)  
▲광주금당산악회 8월1일(토) 지리산 서산대사길 대성계곡 트레킹, 봉선동롯데마트앞 07:10, 진남동식재마트앞 07:20, 영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7:5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키냥**

광고문의 (062) 227-9600 | 신문구독 (062) 220-0551 | 예향구독 (062) 220-0550